제1회 · 룻기 1장 1-22절 (완결 가이드)

룻기 1장 · 베들레헴에서 길을 시작하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 흉년에서 보리 추수까지

시대 배경 : 사사 시대 (삿 21:25)
기록 연대 : 주전 1000년경 (다윗 왕정 초기)
핵심 동사 : 슈브(שׁוּב · 돌아오다, 12회)

제1장 핵심 요절 (Key Verse · 룻기 1:16)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역사·문화 배경 — 사사 시대 말기 (주전 1100년경 추정)

① **왕이 없던 사사 시대(룻 1:1):**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영적·도덕적 혼란과 외적의 침입, 기근이 반복되던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다윗 왕가의 씨앗을 예비하셨습니다.

② **'떡집(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과 모압 이주:** '베들레헴(בֵּית לֶחֶם)'은 글자 그대로 **'떡집(House of Bread)'**입니다. 언약의 땅 떡집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 가족은 사해 동쪽 고원 지대인 이방 땅 모압(그모스 신 숭배지)으로 잠시 거류(구르, גּוּר)하러 내려갑니다.



사사 시대 베들레헴 가옥·성문 터
(시대 참고 상상 복원)

룻기 1장 주요 인물 및 지명 어원 대조표

구분 / 이름	히브리어 원어	이름의 뜻·풀이(전통 어원 포함)	1장 내 역할과 행적
엘리멜렉 (남편)	אֱלִימֶלֶךְ (Elimelech)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 후 객사(1-3절)
나오미 / 마라	נָעֳמִי / מָרָה	'기쁨·고움' → '쓰라림'(룻 1:20)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귀향(6, 20절)
말론 · 기룐 (두 아들)	מַחְלוֹן · כִּלְיוֹן	'병약함' · '쇠약함'(전통 어원 풀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 후 10년 만에 사망(4-5절)
오르바 (첫째 며느리)	עָרְפָּה (Orpah)	'목덜미'(전통적으로 '등을 돌리다'로 풀이)	눈물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고향으로 귀환(14절)
룻 (둘째 며느리)	רוּת (Ruth)	'벗 · 동무'(전통 어원 풀이)	나오미와 여호와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음(14, 16절)
베들레헴 · 모압	בֵּית לֶחֶם · מוֹאָב	'떡집'(유다 성읍) · 사해 동쪽 고원 이방 땅	흉년의 출발지이자 보리 추수의 귀향지(1, 22절)

1장을 여는 히브리어 핵심 단어 4선

① **샤아르 שָׁאַר (남다)**
3절·5절 반복 —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남았다가, 두 아들마저 죽고 나오미가 남음

② **파카드 פָּקַד (돌보시다·찾아오시다)**
6절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돌보셔서)' 양식을 주심

③ **다바크 דָּבַק (굳게 붙다)**
14절 —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으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굳게 붙음'(창 2:24 같은 동사)

④ **슈브 שׁוּב (돌아가다·돌아오다)**
1장에만 12회 등장 — 모압 들판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실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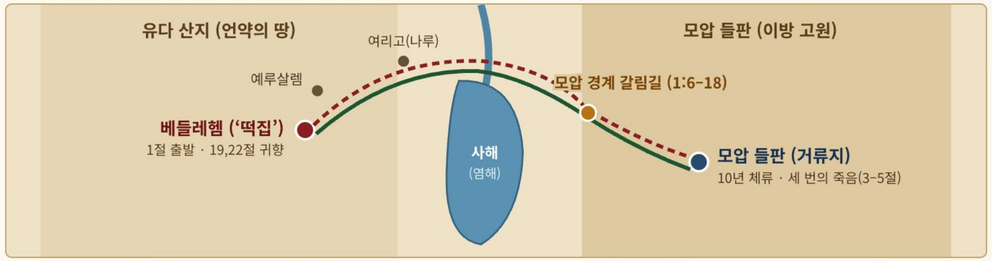
성경 땅 마스터 지도 & 베들레헴-모압 지형 고도 단면도

실제 이동 거리: 약 70~80km (걸어서 4~5일 길, 추정)



룻기 1장 지리적 이동 경로도 (유다 산지 ↔ 요단·사해 ↔ 모압 들판)

북쪽 요단강 여리고 도하길 또는 남쪽 사해 우회길



개역한글 (KRV · 1961 · 공인 원문 1–13절)	꿈바온 정밀 낭독역 (쉬운 성경 흐름 · 1–13절)	World English Bible (WEB · Public Domain)
1-2절 1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1-2절 1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들판에 가서 잠시 몸을 붙여 살려고 길을 나섭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들판에 이르러 그곳에 머뭅니다.	1-2절 1 In the days when the judges judg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 certain man of Bethlehem Judah went to live in the country of Moab with his wife and his two sons. 2 The name of the man was Elimelech, and the name of his wife Naomi. The names of his two sons were Mahlon and Chilion, Ephrathites of Bethlehem Judah. They came into the country of Moab and lived there.
3-5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지 십년 즈음에 5 말론과 기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5절 3 그러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곁에는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4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십 년쯤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5 그리고 말론과 기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이도 남편도 잃은 채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3-5절 3 Elimelech, Naomi's husband, died; and she was left with her two sons. 4 They took for themselves wives of the women of Moab. The name of the one was Orpah, and the name of the other was Ruth. They lived there about ten years. 5 Mahlon and Chilion both died, and the woman was bereaved of her two children and of her husband.
6-7절 6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6-7절 6 모압 들판에서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들판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7 두 며느리와 함께 머물던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로 나섰습니다.	6-7절 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hat she might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country of Moab how Yahweh had visited his people in giving them bread. 7 She went out of the place where she was, and her two daughters-in-law with her. They went on the way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8-10절 8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8-10절 8 길 위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자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세상을 떠난 이들과 나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듯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9 너희가 각자 새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나오미가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며 10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8-10절 8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return each of you to her mother's house. May Yahweh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9 May Yahweh grant you that you may find rest, each of you in the house of 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10 They said to her, "No, but we will return with you to your people."
11-13절 11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12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찌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13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11-13절 11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아직 있겠느냐. 12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맞을 수 없다. 설령 오늘 밤 남편을 맞아 아들들을 낳는다 한들, 13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나의 쓰라림이 너희보다 더 크구나."	11-13절 11 Naomi said, "Go back, my daughters. Why do you want to go with me? Do I still have sons in my womb, that they may be your husbands? 12 Go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If I should say, 'I have hope,' if I should even have a husband tonight, and should also bear sons, 13 would you then wait unti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n refrain from having husbands? No, my daughters, for it grieves me seriously for your sakes, for Yahweh's hand has gone out against me."



[장면 1 · 룻 1:1-2] 베들레헴을 떠나는 네 식구
흉년이 든 '떡집'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모압 들판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룐.



[장면 2 · 룻 1:3-5] 모압 땅에 남겨진 세 여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기룐이 죽고, 낯선 이방 땅에 남겨진 나오미와 오르바, 룻.

[주해 1 · 모압 들판(세데 모압), 1–2절]
'모압 지방(שְׂדֵי מוֹאָב)'은 사해 동쪽 아르논강 남쪽의 해발 800m 고원 평야로, 모압 고원 성읍들(길하레셋 등)이 위치한 비옥한 목초·곡창 지대였습니다.

[주해 2 · 여호와께서 권고하사(파카드), 6절]
'권고하사(פָּקַד,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구원 행위를 뜻합니다(출 4:31, 눅 1:68).

[주해 3 · 기업 무를 자·계대혼 배경, 11–13절]
룻기 3-4장의 기업 무를 자(고엘) 제도와 이어지는 고대 근동의 가족 계승 관습입니다(신 25:5-10 참조).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음을 들어 귀향을 권면합니다.

개역한글 (KRV · 1961 · 공인 원문 14-22절)	꿈바온 정밀 낭독역 (쉬운 성경 흐름 · 14-22절)	World English Bible (WEB · Public Domain)
14-15절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4-15절** 14 두 며느리가 다시 소리 높여 웁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했지만, 룻은 시어머니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14-15절** 14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then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stayed with her. 15 She said, "Behold,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to her god. Follow your sister-in-law."
16-18절 16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6-18절** 16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님을 떠나라고,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이 밤을 보내시는 곳에서 저도 밤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17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숨을 거두고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죽음 말고 다른 무엇이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 놓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18 나오미는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6-18절** 16 Ruth said, "Don't urge me to leave you, and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Yahweh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you and me." 18 When Naomi saw that she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topped urging her.
19-21절 19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19-21절** 19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온 성읍이 술렁거렸고, 여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20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주시오. 전능자께서 나를 몹시 쓰라리게 하셨소. 21 내가 가득 차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거슬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시오?"	**19-21절** 19 So they both went until they came to Bethlehem. When they had come to Bethlehem, all the city was excited about them, and they asked, "Is this Naomi?" 20 She said to them, "Don't call me Naomi. Call me Mara, for the Almighty has dealt very bitterly with me. 21 I went out full, and Yahweh has brought me home again empty. Why do you call me Naomi, since Yahweh has testified against me, and the Almighty has afflicted me?"
22절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 22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들판에서 돌아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 그녀의 며느리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선 것은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22절** 22 So Naomi returned, and Ruth the Moabitess, her daughter-in-law, with her, who returned out of the country of Moab. They came to Bethlehem in the beginning of barley harvest.



[장면 3 · 룻 1:14–18] 모압 경계 갈림길의 선택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가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팔을 굳게 붙잡고(다바크) 신앙을 고백함.



[장면 4 · 룻 1:19–21]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
성문 어귀 여인들의 술렁임 속에 "나를 마라(쓰라림)라 부르라" 탄식하는 나오미.



[장면 5 · 룻 1:22]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빈손이라 탄식했으나, 곁에 선 룻과 함께 황금빛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베들레헴에 들어섬.

[주해 4 · 오르바와 룻의 대조, 14–15절]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그모스)'에게로 돌아간 것은 상식적인 선택이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좇았더라(דָּבַק, 다바크)'로 대조됩니다.

[주해 5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17절]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신명인 '여호와(יהוה)'의 이름으로 맹세함은 성경에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초기 여호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해 6 · 보리 추수 시작, 22절]
보리 추수(유월절 무렵, 4월경)는 유다 땅에서 가장 먼저 거두는 첫 수확입니다. 1절의 '흉년'이 22절의 '보리 추수 시작'으로 역전됩니다.


보리·떡 (상상 복원)

단락별 정밀 본문 주해 (Exegesis of Ruth 1:1–22)

① 1–2절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베들레헴의 흉년’이 지닌 역설

룻기 서두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בִּימֵי שְׁפֹט הַשֹּׁפְטִים)’는 사사기 시대의 영적 침체를 배경으로 깔아 줍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떡집)’에 떡이 떨어지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정작 하나님이 왕 되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들판에 거류(구르)하러 내려갑니다. 잠시 머물려던 발걸음은 10년의 체류로 굳어집니다.

② 3–5절 · 세 번의 죽음과 ‘남겨진 여인(샤아르, שְׁאַר)’의 고통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3절),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맞아들인 두 아들 말론과 기룐마저 죽습니다(5절). 3절과 5절은 모두 **‘남았더라(וַתִּשָּׁאֵר, 와티샤에르 — 샤아르)’**라는 동사로 끝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과부는 법적·경제적 보호막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③ 6–18절 · 귀향길의 세 차례 권면과 룻의 ‘다바크(דָּבַק, 굳게 붙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파카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귀향의 출발점이 됩니다(6절).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 세 차례(8절, 11–12절, 15절)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입 맞추고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굳게 붙었습니다(דָּבְקָה, 다브카)’**. 이 동사는 창세기 2:24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신명기 10:20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쓰인 강한 결속의 동사입니다.

④ 19–22절 · 나오미의 탄식(‘마라’)과 성경 기자의 조용한 반전(‘보리 추수 시작’)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떠났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나오미)’이 아닌 ‘쓰라림(마라)’이라 부르라 탄식하지만(20–21절), 22절은 그녀 곁에 모압 여인 룻이 서 있으며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로 1장을 닫습니다.

본문 주해 핵심 요약 — ‘슈브(שׁוּב, 돌아오다)’ 12회의 신학

룻기 1장 전체를 이끄는 열쇠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שׁוּב · 돌아가다/돌아오다)’**입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무려 12번** 등장하며, 오르바는 ‘모압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고(슈브, 15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과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슈브, 6, 22절)’. 성경에서 ‘슈브’는 단순한 걸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의 동사**입니다.

원어 인사이트 심화 (Hebrew Word Study in Ruth 1)

히브리어 원어	음역 및 기본 뜻	룻기 1장 문맥과 구약 신학적 의미
(1:6) פָּקַד	**파카드** (paqad) 찾아오다 · 돌보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역사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운명을 바꾸시는 구원 방문(출 3:16, 4:31).
(1:8) חֶסֶד	**헤세드** (chesed) 인애 · 언약적 사랑	법적 의무를 넘어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지고 불쌍히 여기는 신실한 사랑.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헤세드를 여호와의 헤세드로 축복함.
(1:9) מְנוּחָה	**메누하** (menuchah) 안식 · 쉼의 처소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 새 가정에서 누릴 평안과 보호(1:9). 이 기도는 3:1(보아스를 통한 안식)과 4장의 결혼을 통해 성취됨.
(1:14) דָּבַק	**다바크** (dabaq) 굳게 붙다 · 밀착하다	가죽이나 뼈가 달라붙듯 떨어지지 않는 언약적 결합. 룻은 조건이나 이익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으로 나오미에게 자기 삶을 묶음.
(21–1:20) שַׁדַּי	**샤다이** (Shaddai) 전능자 (엘 샤다이)	족장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창 17:1, 욥기 다수 등장).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조차 우연이 아닌 전능자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함.
(1:21) רֵיקָם	**레캄** (reqam) 빈손으로 · 텅 빈 채	1:21에서는 나오미가 ‘빈손으로(레캄)’ 돌아왔다고 탄식하나, 3:17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여섯 되를 주어 ‘빈손으로(레캄)’ 가지 않게 함.

룻기 1:16–17 · 룻의 7중 언약 고백의 대칭 구조

① **동행의 결단 (16a):**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② **길의 일치 (16b):**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③ **거처의 일치 (16c):**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④ **★ 중심 고백 (16d):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⑤ **죽음의 일치 (17a):**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⑥ **장지의 일치 (17b):** “거기 묻힐 것이라 (선조들의 묘지에 함께 묻힘)”
⑦ **여호와 신명 맹세 (17c):**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장 한눈에 보기

삼단 요약 흐름

누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① 떠남 (1–5절)
베들레헴의 흉년 → 모압 이주 →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세 과부만 남음

② 갈림길 (6–18절)
양식 소식과 귀향 결심 → 오르바는 떠남, 룻은 어머니와 여호와께 붙음

③ 도착 (19–22절)
온 성읍의 술렁임, "나를 마라라 부르라" →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도착

룻기 1장 문학 구조 — 수미상관(Inclusio)과 세 마디 대칭 전개

룻기 1장은 **1절의 '흉년(רָעָב)'과 '모압으로 떠남'**에서 시작하여, **22절의 '보리 추수 시작'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닫히는 정교한 수미상관(Inclusio) 구조를 이룹니다.

A. 제1막 (1:1–5) · 베들레헴의 흉년과 모압에서의 상실 [비움 / Emptying]
• 네 식구(엘리멜렉·나오미·말론·기룐)가 흉년을 피해 모압 들판으로 내려감 → 10년 후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 홀로 남겨짐(샤아르)

B. 제2막 전반 (1:6–14) · 여호와의 돌보심 소식과 모압 경계의 눈물 [전환 / Turning]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6절) → 나오미의 두 차례 귀향 권면과 축복 →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굳게 붙음(14절)

★ C. 중심축 (1:15–18) · 룻의 언약적 신앙 고백 [결단 / Covenant Commitment]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6절) →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옴

B′. 제3막 전반 (1:19–21) · 베들레헴 성읍의 술렁임과 나오미의 탄식 [귀향 / Returning]
• "이 사람이 나오미 아닌가?"(19절) → "나를 나오미(기쁨)라 부르지 말고 마라(쓰라림)라 부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20–21절)

A′. 제3막 후반 (1:22) · 모압 여인 룻과의 동행 & 보리 추수의 시작 [회복의 서막 / Dawn of Harvest]
•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옴 →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절의 '흉년'이 22절의 '보리 추수'로 역전됨)

1절(출발)과 22절(도착)의 신학적 대조 & 세 인물의 시선

대조 항목	룻기 1:1–5 (떠남과 상실)	룻기 1:19–22 (돌아옴과 새 시작)
계절과 양식	그 땅에 **흉년(기근)**이 듦 (1절)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심 · **보리 추수 시작** (6, 22절)
방향과 동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거류함(구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슈브)**
동행 인물	엘리멜렉 · 나오미 · 말론 · 기룐 (네 식구)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 (두 여인)
나오미의 인식	"내가 풍족하게(가득 차서) 나갔더니" (21a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레캄)**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b절)
하나님의 예비	세 번의 죽음 속에서도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짐	빈손이라 여긴 나오미 곁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룻 (4:15)'**과 **'보리 추수'**가 준비됨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 — 침묵의 여백 (절제된 읽기)

성경 본문이 직접 평가하지 않고 침묵으로 남겨 둔 자리를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읽을 때, 말씀의 본래 초점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① **모압 이주의 정죄 여부:** 본문은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간 일을 직접 죄라거나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그 벌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② **오르바에 대한 평가:** 본문은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른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으며, 그 위에 룻의 '다바크(굳게 붙음)'가 조용히 빛납니다.

③ **나오미의 탄식에 대한 교정:** 본문은 "전능자가 나를 쓰라리게 하셨다"는 나오미의 탄식을 그 자리에서 꾸짖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뒤, 바로 다음 절(22절)에 '함께 돌아온 룻'과 '보리 추수 시작'을 나란히 놓아 둡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나갈 말씀 —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꿈바온 정밀 낭독역] "어머님을 떠나라고,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이 밤을 보내시는 곳에서 저도 밤을 보내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Ruth said, 'Don't urge me to leave you, and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Ruth 1:16, WEB)

구속사 잇기 — 룻기 1장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 1:5)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과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다음 절(17절)에서 그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 가족의 걸음은 룻기 4장 끝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신약성경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구속사 계보] 빈손의 귀향길에서 메시아(생명의 떡)의 탄생까지

룻기 1장	→	룻기 2–4장	→	룻 4:22 / 삼상 16장	→	마태복음 1:5 / 요 6:35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의 베들레헴 귀향		기업 무를 자 **보아스**와의 결혼 · **오벳** 출산		오벳 → 이새 → **다윗 왕**의 탄생		베들레헴에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 1:5-6a)

• **베들레헴('떡집')의 구속사적 완성:** 룻기 1장에서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은,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 다윗의 고향이 되고, 마침내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자리(미 5:2, 요 6:35)**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 한 물음 앞에 머물기

"내가 빈손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보리 추수)이 있는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탄식했으나(21절), 하나님은 이미 그녀 곁에 '룻'을 두셨고 발걸음이 닿은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를 시작해 두셨습니다(22절).



[룻기 1:22 · 베들레헴의 새벽] 황금빛 보리 이삭이 익어 가는 새벽 들판과 저 멀리 보이는 베들레헴 성읍

마침 기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는 주님, 빈손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저희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빌었던 그 인애와 안식을 오늘 저희의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룻처럼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장 이어 읽기 · 성경 한 바퀴 제2회 예고

룻기 2장 · 「보리 이삭을 줍는 밭 — 우연처럼 찾아온 은혜 (룻 2:1-23)」

우연히 이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풍성한 양식이 주어집니다.

NEXT · RUTH 2 →